

캄보자의 봉건국가－첸라에 대한 몇가지 문제

박철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에는 아직 새롭게 해명하여야 할 문제도 많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245페이지)

지금까지 중세캄보자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첸라력사 특히 첸라국가의 형성과 그 이후의 력사발전로정에 대한 정확한 문제가 밝혀지지 못하였다.

1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캄보자령역에는 봉건국가인 푸난제국이 존재하였다.

푸난제국은 당시 인민들의 끊임없는 반봉건투쟁과 계속되는 외부의 침략으로 쇠퇴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 시기 푸난국가는 그에 예속된 여러 종족들의 반항에 부딪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푸난국가의 기본주민인 크메르인들과 혈통상 비슷한 첸라인들의 폭동이 세차게 일어났다.

첸라인들의 거주지는 푸난국가의 북부지역이었으며 그들은 푸난국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의 소왕국을 이루고 살았다.

푸난국가가 멸망할무렵 첸라인들이 이미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은 여러가지 자료로 증명할수 있다.

중국의 《송사》에는 《첸라왕국은 린이(주－참빠왕국을 의미)의 서남쪽에 위치하고있다. 찰리왕조라고 부르는 첸라의 어느 한 왕을 치뜨라쎄나라고 불렀다. 그의 선임자들은 점차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였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첸라가 푸난국가의 태내에 존재하고있었음을 알수 있게 하는 한편 치뜨라쎄나라고 불리운 왕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치뜨라쎄나는 반푸난폭동을 일으켜 푸난국가를 멸망시킨 지휘자의 한사람이였다.

다음의 자료로 우의 내용을 더 보충할수 있다.

《송사》에서는 《푸난에 예속되기 전에 첸라의 수도는 린가빠르바따산가까이에 위치한 린그키아뽀뽀였다. 여기에 신 뽀뽀리(주－브하드레시바라를 의미)를 신앙하는 사원이 세워졌다. 첸라의 왕들은 해마다 지정된 어느날 밤에 희생자를 신 뽀뽀리에게 드리였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보면 예속전의 첸라국가는 단순히 푸난국가의 어느 한 지방령주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통치중심지까지 가진 무시 못할 국가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면 푸난국가에 예속되기 전의 첸라국가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첸라국가가 푸난국가의 존재시기에 이미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있었다는것이 자명한 조건에서 출현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보자에서 발굴된 10세기의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에는 크메르인들의 전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력사적사실들이 새겨져있다.

우선 이 비문에서는 캄보자의 건국전설을 전하고있는데 그것은 첸라의 력사적뿌리를 리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비문에 적여진 전설에 의하면 캄보자의 첫 왕가는 은둔자 캄부 스바이암브후바와 시바신이 보낸 하늘의 녀신 메라와의 결혼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크메르의 전설은 비록 신화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둔자 캄부와 메라와의 결혼내용은 카운디냐와 나가-솜마와의 혼인으로 왕권의 막을 올린 푸난국가형성에 관한 전설과는 전혀 다르다.

전설에서 캄부를 은둔자로 묘사한것은 카운디냐처럼 왕권을 세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온 인물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산 원주민이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볼수 있다.

캄부에 대한 전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명백치 않으나 이것은 첸라국가의 형성과 관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이러한 건국전설이 푸난국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푸난국가내의 어떤 왕국이 캄부전설을 전하여왔으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 등으로 설명되며 푸난국을 뒤엎은것은 다름아닌 첸라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비추어볼 때 더욱 신빙성이 높다.

푸난국가가 첸라에 의하여 598년에 멸망하였다는 역사적사실에 비추어보면 598년 썩 이전에 첸라가 출현하였다는것이 명백하다.

캄보자의 어느 한 비문에서는 첸라왕 브하바바르만의 아버지 비라바르만이 푸난의 신하였으며 할아버지 사르바브하음왕때도 그(푸난)에 종속되어있었다고 적여져있다.

첸라의 왕 브하바바르만은 자기 동생이며 이후 왕이 된 치프라세나와 6세기말에 반푸난투쟁을 이끈 지휘자의 한사람이었다.

바로 이러한 브하바바르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때에도 첸라가 있었다는것은 푸난국가가 멸망하기 이전시기에 첸라가 벌써 출현하여 존재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시기의 첸라는 오늘의 캄보자의 바싸크지역에 있었다.

이상의 사실은 첸라가 푸난국가가 멸망한 다음에 형성된 국가라고 전하는 일부 견해들을 과학적으로 부정할수 있게 하는 여지를 준다.

첸라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명백히 하여야 할 문제는 푸난멸망과 그 직후의 첸라의 영역과 첸라의 분열, 분열된 두 국가의 그후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푸난을 반대하는 폭동은 6세기 중엽에 전국을 휩쓸었다. 이 폭동은 브하바바르만과 치프라세나라고 부르는 두 형제가 지휘하였다.

폭동자들은 푸난의 이전 수도 바따뿌라를 점령하고 련이어 전과를 확대하여 많은 지역을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결국 푸난국가는 598년에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캄보자령역에는 푸난국가를 대신하여 크메르인들의 국가인 첸라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첸라국가의 출현은 예속전의 첸라가 아니라 이전의 푸난령토전체를 망라한 자립적인 국가로서의 첸라를 의미한다.

푸난국가를 멸망시키고 왕위에 오른 브하바바르만은 푸난의 대신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변세력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출신의 공주 라크시미를 왕비로 맞아들이었다.

598년에 왕위에 오른 브하바바르만은 600년에 왕위를 동생인 치프라세나에게 넘겨주었다. 마헨드라바르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왕이 된 치프라세나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주변의 령주들을 하나하나 자기 손에 틀어쥐였다.

611년에 왕위를 이은 치뜨라쎄나의 아들 이사나바르만1세때부터 대내대외정복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주요한 정복대상은 푸난의 잔여세력인 발라찌야가 세운 발라지찌야뿌라였다.

푸난의 카운디냐-쏘마혈통의 발라지찌야는 푸난국가멸망후 스톤그 센강류역(쓰툼그 센은 톤레싸프와 메콩강사이에 있었다.)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국호를 발라지찌야뿌라(이후 아닌지따뿌라라고 불렸다.)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그는 중국에 사절들을 파견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사나바르만1세는 무력을 동원하여 발라지찌야뿌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수도 스톤그 센에 자기의 도읍을 옮기고 이사나뿌라라고 불렸다. 그가 수도를 옮긴 원인은 서쪽으로의 령토확장정책에 비추어볼 때 메콩강류역에 있는 이전의 수도가 동부국경과 가깝고 서쪽으로는 지나치게 멀었던데 있다. 그후 이사나바르만1세는 캄보자의 서북쪽에 있는 세 왕국들인 카끄란까뿌라, 아모크하뿌라, 브히마뿌라 등 여러 국가들을 수중에 장악하였으며 좀더 전진하여 서쪽에 있는 당시의 강력한 국가인 몬족의 드바라바티국가의 동부국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사나바르만1세는 선임자들이 쓰던 방법대로 동북쪽의 참빠국가와 외교적관계를 밀접히 하여 참빠의 공주를 안해로 맞아들이고 동부국경의 안전을 보장한 다음 침략을 확대하여 현 라오스의 중부와 상부일대까지 정복하였다.

첸라의 대외정복은 이사나바르만1세의 뒤를 이은 브하바바르만2세, 자이야바르만1세 때에도 계속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첸라국가의 통치배들은 시바와 비슈누신에 대한 숭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여 통치체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종교건축물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왕권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자이야바르만1세이후 첸라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과 내부싸움으로 약화되어 706년에는 나라가 두 부분으로 분열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국의 역사책인 《당사》에 의하면 첸라는 706년에 땅첸라(륙첸라)와 물첸라(수첸라)라고 부르는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

사실상 첸라는 메콩강중류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땅첸라와 메콩강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물첸라로 분열되었다. 일부 역사서적들에서는 편의상 땅첸라를 상부첸라, 물첸라를 하부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열이후 상부첸라는 수도를 현 바싸크지역의 빠세에 두었고 하부첸라는 바따뿌라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때부터 오래동안 두 국가는 독자적인 국가로서 자기의 역사발전로정을 걸어왔다.

상부첸라에 비해볼 때 하부첸라의 정치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내부싸움이 심하여 또 두 왕조로 분열되기도 하였다. 즉 발라지찌야가문의 《달》왕조와 썸브후뿌라의 《태양》왕조가문사이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하부첸라의 두 왕국들은 자기들의 왕조가 카운디냐-쏘마왕조계통의 피줄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성을 놓고 싸웠다.

게다가 8세기부터 하부첸라는 말라이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말라이인들은 하부첸라의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인 뿔로폰도르섬을 점령하고 그것을 침략의 기지로 삼았다. 이리하여 하부첸라의 국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8세기 후반기에는 또 하부첸라의 일부 연해지방이 다른 적수인 쑤마떼라의 슈리비자

야국가의 침략을 받아 그의 지배밑에 들어갔다.

9세기초 자야바르만2세 통치시기에 첸라는 다시 통합되었다.

통합된 첸라국가의 수도는 초기 오늘의 앙코르 톰의 남동쪽에 있는 로르오스였다. 9세기말 야소바르만1세 통치시기에 새로운 수도로 야소다라뿌라(앙코르 톰)를 건설하였으며 국내각지에 많은 사원들을 세웠다. 그후 수도를 한때 코케르에 정하였으나 10세기 중엽에 다시 앙코르 톰으로 옮겨왔다. 이때부터 첸라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첸라통치배들은 9세기이후 동쪽으로는 참빠국가를 공격하여 일부 령토를 병합하고 중국의 운남일대에까지 세력을 뻗었으며 서쪽으로는 만마의 드바라바티국가를 정복하고 메남강하류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리하여 첸라는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메콩강류역에서 강한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었다.

캄보자력사에서는 이때부터 《캄부자데샤》라는 나라이름을 때때로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를 수도이름을 따서 《앙코르왕조시대》 혹은 《앙코르시대》라고 불렀다. 《앙코르시대》의 번성기인 12세기 전반기에 캄보자건축사상 이름있는 건축물인 앙코르 와트(《수도의 사원》이라는 뜻)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첸라(앙코르왕국)는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투쟁과 이웃나라들의 침입으로 쇠퇴하여갔다.

13세기말에 타이족의 수코타이국가의 침략을 받아 메남강류역일대를 잃었으며 14세기에는 서쪽에서 침입한 타이족의 아유티야국가의 침략을 받았다. 1430년 아유티야의 왕 보로마라차2세는 7달동안의 포위공격끝에 앙코르 톰을 점령하였다. 그때 앙코르왕조의 많은 불교승려들이 배반하여 적들편에 넘어갔다.

1431년 아유티야는 또다시 수도 앙코르 톰을 점령하였으며 1천여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첸라의 왕자리에는 아유티야국가의 왕자가 들어앉았다.

첸라통치배들은 산으로 도망쳤으며 1434년에는 수도를 남쪽의 프놈뎀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첸라는 이전의 강성하던 시기를 다시는 체험할수가 없었다. 외세의 침략에 더는 대처할수가 없게 되었으며 인민들도 도망친 통치배들에게 등을 돌려대었다. 버리고간 수도 앙코르 톰과 그 주변은 열대산림지대로 변하고 점차 사람의 발자취도 희미해졌다. 이리하여 근 천년간 존재해오던 크메르인들의 국가는 력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첸라는 푸난국가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태내에서 존재하다가 독자적인 국가로 캄보자의 력사에 큰 흔적을 남긴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였다.